

‘나주농업 페스타’ 방문객 문전성시

29일까지 나주시 통합축제 나주쌀 맥주 1000개 이틀만에 완판 농·축산 가공품, 식음료 큰 인기

나주시 통합축제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29일) 행사장에서 열리는 '나주농업 페스타'가 방문객들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농업 페스타에서 2023나주축제를 기념해 선보인 한정판 맥주가 지난 20일 개막 후 이틀 만에 1000개를 모두 완판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주축제 한정판 기념맥주'는 나주평야에서 생산된 쌀이다. '시골농장' (나주배 식혜), '청솔목장' (치즈·요거트), '다도참주' (라봉) 등 지역 농산물 가공업체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나주농업 행사장 곳곳에서 선보이는 농·축산 가공품 판매장과 영산강 식음료 매장에서 사흘간 열린 매출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나주 배와 쌀, 잡곡, 한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10%를 농산물 구매권으로 돌려주며 무료 택배 지원도 한다.

나주 특산물 신고배를 배 터지게 맛볼 수 있는 '시식 공간'과 나주시축산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식회는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25일 양봉(꿀) 시식회와 26일 양계(통닭), 27일 낙농(우유·요거트), 28일 산란계(구운란), 29일 한돈(돈가스·불고기) 등 행사가 이어진다. '영산강 카페테리아'에는 지역 외식업체 11곳이 입점해 다채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나주 영산강 둔치공원에서 열리는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의 '나주농업 페스타' 행사장에서 한 어린이가 나주 배를 맛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영산포 속성 홍어와 돼지 수육, 목은김치를 곁들인 흥어삼합이 대표 음식이다.

연탄 불고기와 낙지 요리, 해물파전, 추어탕, 국수, 김밥, 스테이크, 돈가스 등도 인기가 높다.

식음료장에서는 축제 기간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있다. 이를 들고 영산포 흥어의 거리 판매점·음식점에 가면 5~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바가지요금을 막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나주농업 페스타 행사장에서는 나주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홍보관, 나주도시농업 연구회 리사이클링 모종심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에는 주말 동안 매일 1000~2000명이 참여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더니 관광객의 호응이 높다"며 "축제 기간 안전한 먹거리와 최고품질의 나주 농·축·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축산인, 업체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만 갈대축제 12만명 찾았다

전년보다 80% 늘어 흥행 성공 농·특산물 매출액도 크게 늘어

올해 8번째 열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흘간 12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강진군은 지난 13~22일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관람객은 모두 12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는 은빛 갈대밭을 은막 삼아 '미디어 파사드'를 펼치며 야간 볼거리를 강화했다. 강진만에서 어린이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갈대 로드'에서는 단체 참여가 줄을 이었다. 참가자들은 11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강진만의 생태계를 체험했다.

축제장에 마련한 음식점은 1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특산물은 2400만원, 강진 청자는 5000만원 등 팔렸다.

이곳에서는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강진산 참전복이 640상자(2500만원 상당) 판매됐다.

강진군은 축제 기간 '강진읍시장 상인의 날'과 각종 공연 등을 열어 주민 참여도 높였다.

지난 19일 막을 내린 전국제전 여파로 지역 숙박업소 300여 곳은 모두 만실을 이루기도 했다.

강진군은 내년에는 강진만에 생태공원(정원)을 조성하고, 야간 경관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촌 체류형 관광사업인 '푸소'와 가우도, 마량항, 녹차 밭, 보은산 등 관광 명소를 연계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을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 지정까지 지속 추진해 순천만보다 더 뛰어난 관광지로 만들어 명실공히 관광자원으로 소득을 높이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대거 찾을 수 있도록 축제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2중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추진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건축사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

화순군이 2중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15층) 제한 폐지를 10년 만에 추진한다.

화순군은 최근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열어 2중 일반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화순군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수 제한 폐지를 추진해왔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발의했고, 지난 7월에는 입법 예고를 했다.

지난달에는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부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2중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중전 18층)을 폐지했다.

이로써 층수 제한은 자치단체의 권한이 됐다.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가

운데 212곳이 층수 제한을 없애었다.

화순군은 신규 도시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규제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일조권 제한 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순읍 지역에는 현재 상업지역(용적률 1300% 이내)에 38층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 건축사는 "초고층 주상복합(상업지역) 건축으로 스카이라인이 훼손된 것이 안타깝지만 2중 주거지역의 경우 규제가 개선돼도 일조권 높이 제한과 동별 간격거리 적용으로 일정 층수 이상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 거주민 중심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바람길·녹지 공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 급식관리센터, 아침밥 먹기 홍보활동

장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사장 김명신·이하 급식관리센터)가 최근 황룡강 가을꽃축제장에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급식관리센터는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생 등 지역민들에게 아침밥 대용으로 쌀로 만든 찰밥을 제공하며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렸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도

진행하는 등 쌀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했다.

김명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사장은 "모든 군민이 아침밥먹기를 실천,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전국 최초 지역도가 축제

28일 담양 다미담예술구

담양에서 전국 최초 지역도가 축제가 열린다.

담양군은 담양 다미담예술구 일원에서 오는 28일 '맛있는 담양, 한잔의 풍류'라는 구호로 2023 담양 다미(味)-담주(酒)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양 다미담예술구를 거점으로 군민과 관광객, 상인이 함께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국 최초의 지역도가 축제로, 관내 5대도가(담주브로이, 아침이슬포도원, 즉향도가, 추성고을, 하심당)가 참여해 시음 행사와 더불어 맛있는 담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9900원짜리 합리적인 음식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지역의 우수 공예품과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베품시장과 각종 전시, 체험 행사도 준비됐다.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친환경 유리잔과 대나무 소주잔이 제공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담양 전통주세트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현장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kwangju.co.kr



체험·문화공연... '함평군 청소년한마당' 성료

'제12회 함평군 청소년한마당' 행사가 지난 21일 함평천지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청소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함평군청소년참여기구가 주관한 이번 한마당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체험마당과 2부 공연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체험마당에서는 타투 스티커, 풍선아트, 눈 알콜락데일, 비누만들기 등 총 7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2부 공연마당에서는 마술공연을 비롯한 청소년 10팀이 참가해 댄스, 밴드,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갖고 묶은 끼를 마음껏 선보였다.

장육중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행사에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